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As the Father sent me, so I sen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Website www.edisonkcc.com
Email edisonkcc@gmail.com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분 전
혼인성사 6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안내봉사

6월 모든 성인의 모후 Pr. 7월 사랑하울 어머니 Pr.

친교봉사

6/9 올드브릿지 6/16 야외미사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사무실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남용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복사

6/9 Allison Wong, Jin Park
6/16 Aidan Choo, Justin Woo

전례 봉사자

일시	6/9	6/16
1독서	백수정 수산나	오현주 요한
2독서	청년회	백원선 안나
신자들의 기도	왕클레어	맹베로니카
봉헌	채바오로, 채테레사	로버트 랭건, 최안토니아
성체분배	백영숙, 오애희	이재성, 임문수

오늘의 성가

입 당	142	오소서 성령이여	성 체	500 198	평화의 하느님 성체 안에 계신 주님
봉 헌	212 220	너그라이 받으소서 생활한 제물	파견	143	진리의 성령

말씀의 초대 卍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자 사도들은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다(복음).

제 1 독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卍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 가나과 24 가다.29 나다-30.31 과 34(◎ 30 참조)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 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서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卍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2,3 나-7.12-13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박순만(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최 헬레나 ▪ 아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 최 헬레나 ▪ 친정어머님 최남순의 영혼을 위하여 - 박화성 가족 ▪ 김종진(마르코)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제님 서품 15주년을 축하드리며 - 에디슨 CLC/반석회/대건회/야고보회 ▪ 최안나, 안갑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어나 ▪ 이정우(바오로) 형제님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빌며 - 최태영(스테파노)가족 ▪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가족 ▪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 ▪ 애덕의 모후 뿌레시디움의 1000차 주회합을 축하하며 단원 영육간의 건강을 빌며 - 꾸리아 ▪ 이연준 6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 이용문 가족 ▪ 이슬아 크리스틴, 이승빈 브랜드의 졸업과 대학 입학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 채사무엘, 헬레나 ▪ 추해림 애슐리, 이재현 미카엘의 대학졸업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 채사무엘, 헬레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289	KCC 이차 헌금	\$ 393	미사 참례자 수	194 명	
OLM 주일 헌금	\$ 4,195	OLM 이차 헌금	\$ 702			
교무금 (\$2,490)	성낙순(5) 박재영(6) 최율리오(6)	안을봉(1-6) 이창우(6) 이화자(4-6)	이경우(5-6) 박락준(6)	나한복(6) 임문수(6)	김상기(5-6) 박화성(4-6)	오현주(5-6) 오용운(5-6)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공동체 소식

◆ 윤석로 이냐시오 부제님의 서품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 \$48
• 문의 :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 본당 야외미사 안내

- 일시 : 6월 16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Donaldson Park Grove 3A & 3B
- 미사 후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 사무실 휴무 안내

• 7/1(월) - 7/9(화)까지 사무실 휴무입니다

◆ 애덕의 모후 Pr. 1,000차 주회 알립

- 일시 : 6월 16일(일) 오전 10시
- 장소 : 성당 사무실
- 야외 미사 전, 짧은 주회가 있습니다.
참석 하시어 천차 주회의 은총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6월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으니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프린스톤 한인성당 25주년기념 골프대회

- 일시 : 6월 15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Mercer Oaks Golf Course
- 참가비 : \$120(점심, 저녁식사 제공)
- 참가신청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행사분과장 또는 사무실

◆ 6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6/29-6/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및 참가비 : 9월 6일 ~8일
- 장소 :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 \$240
- 문의 :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주보 광고주 모집 안내

- 칼라주보로 새롭고 알차게 꾸미려고 합니다.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도 다시 부활하려하니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판에 격주로 년 200 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떡 나눔 안내

- 양 그레고리오, 양 카타리나님의 자제분 결혼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본당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분들께서 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흥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6월 10일(월) 저녁 8시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미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 모임

- 일시: 6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친교실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6월 30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복사단 모임

- 일 년 동안 수고해주신 복사단을 위한 피자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 일시: 6월 23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습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누니다

✂ 요한 20,19-23 (성령 강림 대축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요한 20,19)

1.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2. 절망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요한 20,22)

3. 영적 무기력함이 주님의 숨결로 회복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3)

3.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을 신앙으로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 요한 16,12-15(삼위일체 대축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 16,7)

1.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보호자이신 성령의 활동,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봅시다. (성령은 열매로서도 나타납니다. -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 갈라 5,22)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요한 16,13 나)

2.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십니다.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내어 주는 분이요, 꾸밈없는 분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어 주는 기쁨을 맞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요한 16,15)

3.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체험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또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어 봅시다.